

“어르신의 일상 곁에서 더 촘촘한 돌봄” 정은경 장관, 어버이날 맞아 독거 어르신 방문

-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격려 및 독거 어르신 댁 방문하여 일상생활 살펴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8일(금) 오후 4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 등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지내시는 독거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자 이루어졌다.

먼저 방문한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독거 어르신에 대한 대표적 돌봄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등 종사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7.6만명) 65세 이상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생활교육·가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0만명)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등을 설치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위기 상황(화재, 응급호출, 활동미감지)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구급·안부확인

이어, 성남시 관내에 홀로 거주 중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여름 침구류 등을 전달하고, 주거 여건과 냉방 상태, 식사이동 등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폈다. 아울러 평소 이용 중인 노인맞춤돌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청취하였다.

이날, 정은경 장관이 방문한 어르신은 정 장관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직접 찾아와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정은경 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044-202-3450)
		담당자	사무관	최해진	(044-202-3460)



□ 개요

- (목적) 어버이날 계기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 안심 등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 및 종사자 격려·의견 청취
- (일시) '26. 5. 8.(금) 16:30~17:30(60분)
- (장소)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경기 성남시) 및 독거 어르신 가정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26

□ 주요 참석자

- (복지부) 장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장 등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노인지원팀장, 성남시 노인복지팀장 등
- (수행기관 등)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관, 종사자(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응급요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일정
16:30~17:00	'30	▶ 기관 도착 및 행사장 이동
	'30	○ 기관 운영현황 소개 및 종사자 의견청취
17:00~17:10	'10	▶ 차량 이동 (기관 → 독거 어르신 가정)
17:10~17:30	'20	▶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
	'20	○ 후원물품 전달 + 안부 인사 및 애로사항 청취

붙임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 (목적) 지역사회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지연·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5년 55만 명 → '26년 57.6만 명**)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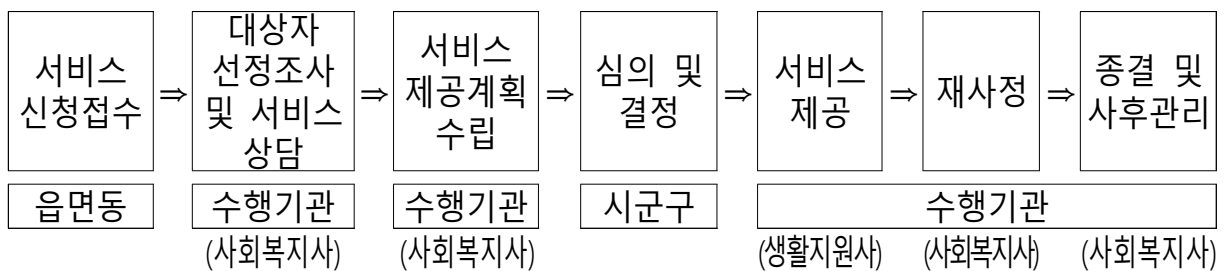
** 일반군(52.1만 명), 중점군(4.5만 명),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신설(1만 명)**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특화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대상자가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으며,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월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최대 2개월, 월 44시간 이하)으로 구분하여 제공됨

- ▶(안전지원) 안부확인(전화,방문,AI·디지털), 생활안전, 말벗, 정보제공
 - ▶(사회참여지원) 사회참여 활동(사회관계·평생교육·여가문화), 자조모임 활동
 - ▶(생활교육지원) 신체영역 활동(영양·보건·건강교육), 정신영역활동(우울예방·인지활동)
 -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식사·청소관리)
 - ▶(특화지원) 사례관리 서비스(개별/집단상담·프로그램, 치료지원) * 우울 등 취약노인
 -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영양·가사·동행)
 -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지원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 (제공체계)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노인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 684개소)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3.9만 명 채용

* (전담사회복지사, 0.3만 명)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

* (생활지원사, 3.6만 명) 직접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요**

- (응급상황 대처)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 미감지 확인)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어 일정 시간(4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전 확인
- (부가서비스) 영상통화, 날씨, 스트레칭 영상 등 지원



□ **서비스 대상자**

- (독거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대응 실적**

구분	대상자 수(가구)			합계	응급상황 등 조치(건)		
	합계	노인	장애인		응급호출	화재감지	활동 미감지
2022년	167,855	159,602	8,253	131,187	15,640	5,319	110,228
2023년	238,806	227,328	11,478	182,071	17,954	6,836	157,281
2024년	268,505	256,105	12,400	341,608	27,069	9,106	305,433
2025년	276,954	264,274	12,680	385,033	25,050	8,111	351,872